

LG화학, 초·중생 화학캠프 1월26일까지 개최

LG화학이 과학꿈나무들에게 재미있는 화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화학캠프> 프로그램에 협력기업 직원 및 지역주민 자녀를 초청하는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화학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1월 21-26일 3차에 걸쳐 협력기업 직원 및 지역주민 자녀 540명을 초청해 <이웃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화학! 2008 LG화학 여가동무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화학캠프에는 화학콘서트, 재미있는 화학실험 등의 화학체험 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야 놀자!, UCC콘테스트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이루어진다.

LG화학의 화학캠프는 어린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화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교육을 통해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합숙을 통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04년 여름 처음 시작해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 실시되고 있다.

2004년에는 임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아 2005년부터 여수, 나주 등 LG화학 지방사업장 지역주민 및 협력기업 직원 자녀들로 대상을 확대해 초·중생 3000여명이 캠프에 참가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방학기간 동안 영어캠프, 경제교실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과학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은 부족한 가운데 LG화학의 화학캠프는 이공계 살리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1/23>